

정신건강

사

라

면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인권 위해 일하고 싶어요”

2000년 도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학생법정을 준비하는 박지연(법학·2) 양을 만나

수업을 위해 학교를 오가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른다. 가끔 한꺼번에 쏟아지는 레포트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는 하지만 우연히 발동한 호기심이 우리의 모험심을 부추기고 그것이 지난한 일상을 스스로 견어차고 적극적인 삶을 일구게 만든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자기 삶의 중심문제로 놓인 박지연(법학·2) 양.

수업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우연히 듣게 된 아시아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민재판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시민법정」 이야기를 통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호기심이 일었다는 그녀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집회에 성치않은 몸을 이끌고 먼 여정을 거쳐 굳은 날도 빠지지 않고 시위하시는 할머니들의 상흔을 목격하면서 자꾸 할머니들이 눈에 밝히고 어떤 사명감같은 것을 느꼈어요」라며 집회의 참여가 호기심을 넘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계기점이 되었다.

6개월 간의 활동. 중에 일본학생들과 함께 만날 수 있었던 지난 여름의 「전쟁과 여성인권」 워크숍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종군위안부의 의미를 「공창」의 수준으로 밖에 알지 못한 그들이 밤을 새워 토론하며 차츰 종군위안부 문제를 공감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NGO에서 국제 학생법정을 위해 준비하겠다는 그들에게서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됐어요」라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요즘 방과후 2000년 국제학생법정을 위한 시나리오를 쓰며 분주하게 지낸다. 이 모임에서 우리학교 차원에서 는 그녀 혼자이지만 법률분과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학교의 활동을 충분히 대표하고 있다. 「국제 학생 법정 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젊은 학생의 힘으로 진범을 심판한다는 역사적 선례입니다. 우리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해요」라며 많은 성신학우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생에서 가장하고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여러나라의 음식을 모두 먹어보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나무 속에 사는 노란 벌레가 있는데 그것 씹어먹으면

과인에플맛이 난대요」라고 스스로없이 말한다. 흥물스런 벌레를 먹는다는 것을 떠올릴 법 한데 스스로없이 같이 먹으려 가지는 그녀에게서 무엇이든지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을 발견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자세가 그녀를 소외된 자를 보듬고 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게하는 힘이리라.

학생정기모임에 참여하면서 타학교 총 여학생회 학생들에게 여대를 다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 상들을 들으며 소수자들의 인권문제를 새삼 다시 생각한다는 그녀. 항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외곽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자신의 문제라고 느끼고 행동하는 그녀에게서 국내외적으로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NGO 일꾼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신수정기자